

보도시점

2026. 9. 4.(금) 11:00

2026. 9. 5.(토) 조간

배포

2026. 9. 4.(금) 06:00

김종구 차관, 한-중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방중

-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및 친선 교류행사 공동개최,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 K-푸드 수출기업 애로 등 의견 수렴 계획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9월 5일(토)부터 7일(월)까지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산 단감 수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중 농업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우선,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중국 농업농촌부와 8년 만에 공동 개최(9.7.)하여 글로벌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 위기에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

농업협력위 부대행사로 양국 농업·농촌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친선 축구 경기도 13년 만에 공동 개최(9.6.)한다. 경기 이후에는 양국 청년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 차세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장 쑤리(张治礼) 농업농촌부 부부장을 만나 스마트 농업기술 협력과 가축방역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장 바오펑(张宝峰) 해관총서 부서장과는 연내 한국산 단감 첫 수출을 위한 검역 현안을 논의하고, K-푸드 유통현장 시찰 및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또한 병행하여 대(對) 중국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농식품협력관	책임자	과 장	강호주	(044-201-2031)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왕희대	(044-201-2036)